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위례성모승천성당 | 2017년 2월 설립

입당 송 |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
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
니다.

제1독서 | 탈출 17,3-7

화답 송 | 시편 95(94),1-2,6-7,11,17,22-23(22과 23과)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
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와 엮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
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
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
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로마 5,1-2,5-8

복음환송 | 요한 4,42.15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
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 음 | 요한 4,5-42 <또는 4,5-15.19-26.39-40-42>

영성체송 | 요한 4,14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
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우물가의 두 사람

한낮.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과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물 한 모금 청하는 예수님께 여인은 꽤나 통명스럽습니다.

사실 태양이 작열하는 중동 지역의 한낮은 물 길으러 가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을 때를 골라 우물에 간 여인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에겐 다섯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섯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나서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물’이란 말씀에 이제까지 통명스럽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야무지게 청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다니며 행복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지 않아도 되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언자적 면모를 본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국 자

신의 갈증을 가시게 할 분은 하느님뿐이란 걸 여인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설파하시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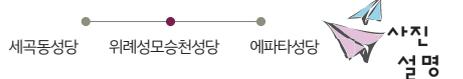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여인의 흥분과 설렘은 “그물을 버리고”(마태 4.20)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어부에게 그물이 필요 없듯,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은 여인도 물동이기가 필요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달려간 여인은 외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낮에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인은 내면에서 샘솟는 ‘생수’를 얻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고을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까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서 물을 구하려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큰 위기에 맞서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요한 4.34 참조)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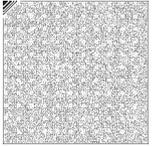


위례성모승천성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00 에스비트램스퀘어 4층



위례성모승천성당은 2017년 2월 문정동성당 위례공소로 시작하여 2017년 8월 문정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4월 신자 투표를 거쳐 지하 4층, 지상 4층의 성전 설계도가 확정되었으며, 2019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성전 봉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생태수변공원 안에 건축되는 성전의 외관은 배 모양이며 흰색 벽돌, 하얀 종탑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하느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함을 갖춘 성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김명중 시문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안현모 리디아 | 방송인

침묵 속에 만나는 하느님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가훈 알아 오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매번 같은 문장을 적어 주셨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아버지 특유의 굵은 베이스톤 목소리로 짧은 설명도 곁들여 주셨지만, 어릴 때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침묵이 진짜로 금이라는 게 아니라, 황금처럼 좋은 것이라는 것까지만 알아 두었죠. 그런데 애써 기억하거나 실천하려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자라면서 은근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멋진 격언들을 접할수록, 왜 하필 그 한 문장이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을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의 의미가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업상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방송국 기자였을 때도, 기자의 본질은 취재,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찰과 청취가 우선이었습니다. 통역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하려는 원문을 머릿속에 똑바로 입력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저의 직업은 ‘듣기’가 중요한 셈입니다. 문제는, 잘 들으려면 말을 멈춰야 한다는 점이죠. 즉, (통역사로서의 예로사행이기도 합니다만) 입을 닫아야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다른 수많은 미덕을 놔두고 ‘침묵’이란 두 글자를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된 건, 직업적인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수록, 제 몸 곁에 달린 귀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제 몸 안에 있는 마음의 귀도 열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속에 침잠할 때 비로소 영성의 귀가 깨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깥귀가 아무리 다양한 소리와 정보를 매일 흡수한다 해도,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귀는 바깥귀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

다. 나의 깊은 자아가 속삭이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하느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면 아버지께서는, 딸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침묵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랐던 겁니다.

요즘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묵’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말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감히 말로써 어찌 손쓸 방법이 없는 전 세계적 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저 말 없이 기도라는 침묵에 몸을 담그고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요즘처럼 외출이 자제되고 사람과의 모임이 줄어든 시기일수록, 침묵 속 하느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 보시면 어떨까요. 평상시 피로감으로 다가왔던 일상도, 미움으로 받아들였던 한마디도, 기도가 주는 금빛 온기 속에서 따뜻한 그리움으로 데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거리낌 없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도 그 온기가 남아있겠죠.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관 돌보고 계십니다
1 베르 5:7 **안*데**



김수영 이레네
송파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5일(일)

성묘 승차권을 묘지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되신 분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장기 미납시에는 무연고 처리됩니다.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3월2일(월)~31일(화)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2천원-조기마감 가능)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묘지관리과, 031)334-0807 용인묘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5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승차권 예매: 명동 출발(신청: 02)727-2225 / 도림동 출발(신청: 02)833-9439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후 알림 예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3월21일 김창수 마르티노 신부(48세)
- 2005년 3월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 2017년 3월21일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88세)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방송시간>

- TV : 월-토 6시, 12시, 18시, 21시(20분)
: 주 일 6시, 9시, 12시, 18시, 21시
- 라디오 : 매일 5시, 18시(5분)
- 유튜브 :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5시 이후 cpbc 홈페이지·모바일앱·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